

## 광주시-인접 시군, '빛고을 광역경제권' 구축 박차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영광군  
상생발전 협약... 다양한 분야 협력  
수시 회의 개최 사업 실행력 제고  
羨시장 "경제 활성화 구심점 역할"

광역시인 광주와 인접한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영광지역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 상생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이들 지역은 행정구역상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지만 6만5000여명이 매일 오가는 '공동생활권'으로서 오랫동안 교류하고 있다. 최근에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경유지에 담양이 포함되는 등 광주와 연계된 대형 사업이 예고되는 등 상호 협조와 상생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다.

2일 광주시청 소회의실에서 '빛고을 광역경제권 조성을 위한 상생발전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구복규 화순군수, 이상익 함평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한중 장성군수, 안상현 나주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및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경제권 구축의 첫 걸음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분산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신산업 창출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등 산업 생태계 구축 △단일생활권을 위한 광역도로 및 광역철

도 인프라 확충 △즐거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도시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영산강 맑은물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협력이다.

협약식에서는 상생협력을 위해 발굴된 4개 분야(산업, 광역교통, 문화관광, 환경생태) 23개 과제에 대한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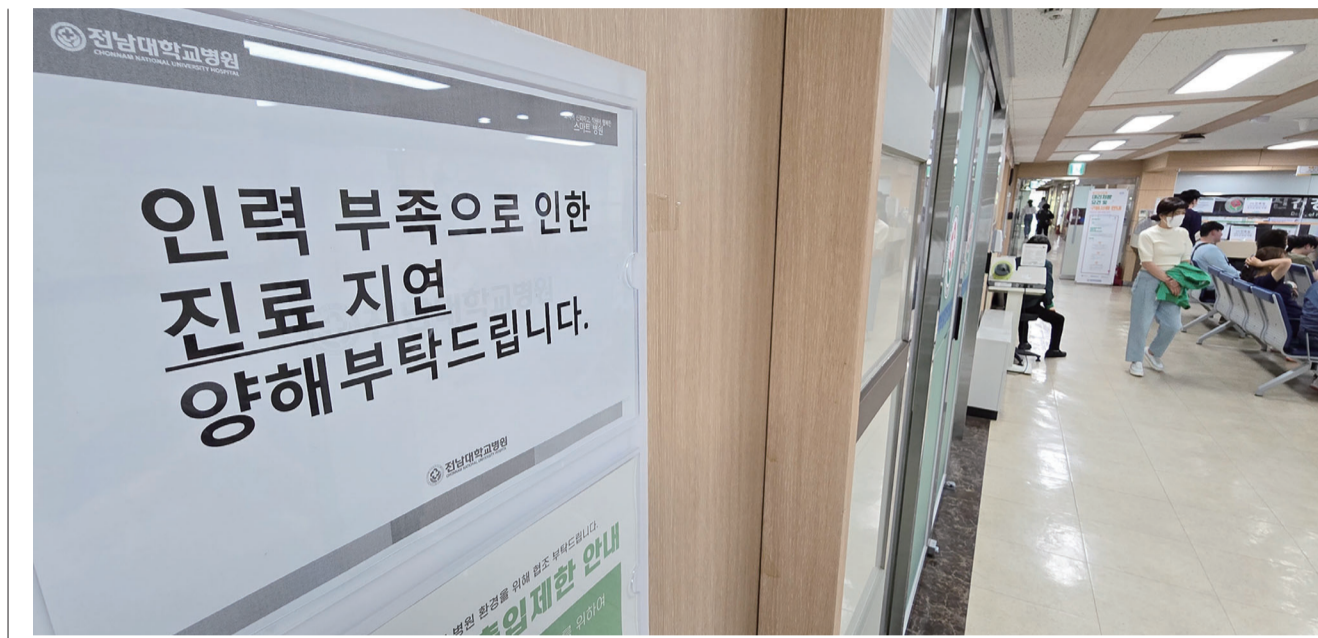
광주시와 인접 시군은 이날 만남에서 추가적인 논의 사항으로 나온 장사시설 이용료 감면, 동북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광주 삼도-함평 나산 광역도로, 첨단연구개발특구 진입로 개설, 장성 로컬푸드 2호점 개장 등에 대해서도 추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광주시와 인접 6개 시군은 현안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해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사업의 실행력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광주시민의 휴식처를 만들고 광주와 함께 상생하고 성장하는 길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동북담 문제 등 민선 8기 광주시와 화순군은 상생하고 있다. 앞으로도 머리를 맞대 시민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광주와 함평은 동일 생활권이다. 빛그린산단 등 현안이 많은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을



**의대교수 주 1회 휴진 확산** 2일 전남대병원 본관 진료실 앞에 진료 지연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전남대병원 의료진들은 3일부터 지속적인 의정 갈등으로 극심한 피로로 인한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 나건호 기자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문화관광 측면과 산업 발전 측면에서 광주와 영광의 시너지는 엄청난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수소산업 활성화, 광역철도망 구축 등 공동 역할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어깨를 나란히 맞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질적인 협력으로 지역발

전을 이끌고 상생의 손을 놓지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나주부시장은 "광주와 나주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이 자명하다. 공동혁신도시가 있고 영산강 Y프로젝트와 연계할 수 있는 영산강이 나주를 관통하고 있다"며 "공동혁신도시 정신을 되살려 광주와 공동과제 추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 인구감소 위기에서 광주가 커지려면 전남과의 상생은 절대적이고 초광역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며 "에너지신산업, 광역철도 기반시설(인프라) 등 나주·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과 손을 맞잡고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inilbo.com

## 올해부터 5월18일 광주 시내버스·지하철 '무료'

5·18민주화운동 44주기에 광주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 운행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일 사회관계장서비스(SNS)를 통해 "5·18기념일이 열리는 18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합개정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11개로 흩어져 있던 5·18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 공포했다"며 "통합조례에는 5·18기념일에는 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명시했으며 이는 5·18의 의미를 시민들과 나누기 위함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통합조례는) 5·18 정신 헌법수목

전문을 시장의 책임으로 규정했다"며 "통합조례는 모두의 5·18로 나가는 첫걸음이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9일 11개로 분산돼 있었던 5·18 관련 조례를 '오월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의 내용을 담아 1개로 통합했다.

## '5·18 통합조례' 개정 근거 강 시장 "모두의 5월 첫걸음"

5·18통합조례안은 11개 기존 조례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체계화 했으며 정신계승과 기념사업의 기본방향을 재정립했다.

또 5·18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계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5·18기념재단 등의 책임성이 강화됐

으며 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등 지방 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5·18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의 의견이 엇갈린 옛 망월묘역(민족민주열사묘역) 안장 범위에 대해서는 속의 과정을 더 거친 뒤 정신계승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을 정하기로 했다.

최권범 기자

대체 공휴일 6일자 신문 쉽니다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 단 하나의 진짜

# 밸런스 라인

엑스페론